

## 연구노트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최연식

##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검토

최연식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 1. 머리말

1966년 불국사 西 3층석탑 흔히 석가탑으로 불리는 석탑의 해체 보수 공사 과정에서 석탑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舍利를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그 안에 들어 있던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無垢淨光陀羅尼經』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로서 신라의 인쇄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로 각별히 중시되어 왔다. 그런데 당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그 밖에도 여러 점의 墨書紙片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그 성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이들에 대한 복원 작업을 시행한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 일부 목서지편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였지만 문서 전체의 내용은 아니고 단지 11세기 전반에 석탑을 중수한 내용이 적혀있다

는 내용만을 소개하는데 그쳤다.<sup>1)</sup> 그런데 최근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중수기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석탑의 건립 및 중수과정 그리고 봉안되어 있던 유물의 역사적 성격 등이 새롭게 논의되게 되었다. 즉 1024년의 중수 사실을 기록한 중수기에 『無垢淨光陀羅尼經』을 봉안하였다고 해석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목판본 『無垢淨光陀羅尼經』의 인쇄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sup>2)</sup> 이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의 반론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sup>3)</sup>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자신들이 판독한 1024년 중수문서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였고,<sup>4)</sup> 이에 기초하여 고문서 및 고대사 전공자에 의하여 문서의 전체 내용과 문서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초적 검토가 이루어졌다.<sup>5)</sup> 이 검토를 통하여 1024년 중수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석탑의 개창과 중수에 관한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다만 문서의 판독과 해석, 그리고 석탑의 중수 절차, 불국사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이해에서 약간이지만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

1) 2005년 9월 14일 연합뉴스 <1038년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 발견> 보도. 이 보도에 의하면 고려초인 1024년과 1038년의 중수 사실을 기록한 문서 2점이 확인되었으며, 이 문서들에서 석가탑은 각각 '無垢淨光塔' (처음에는 '無垢光淨塔'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문서의 도치 부호가 확인되어 '무구정광탑'으로 정정되었다)과 '西石塔'으로 일컬어졌다고 알려졌다.

2) 2007년 3월 9일 조선일보 <'무구다라니' 세계 最古 목판인쇄물 아닐수도> 보도.

3) 2007년 3월 9일 연합뉴스 <무구정광다라니경 통일신라시대 작품 맞아> 보도. 2005년 처음 중수기의 존재가 알려진 직후에도 목판본 『無垢淨光陀羅尼經』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불교사 및 서지학 전문가들에 의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되었다. (2005년 9월 15일 연합뉴스 <무구정광다라니경 고려제작설 근거 희박> 보도 참조)

4) 1038년의 중수 내용을 기록한 문서도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문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5) 안승준·김태식, 《釋迦塔(無垢淨光塔)重修記에 대한 초보적 검토》(신라사학회 제59차 학술발표회 발표문, 2007년 3월 24일) 이중 중수기의 판독 및 해석은 고문서 전공자인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나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문서 원본을 보지 못한 채 박물관에서 제공한 판독문만을 토대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이 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서 원본의 공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이 문서의 역사적 의미, 특히 사상사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밝혀낸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이 문서 및 1038년의 중수 사실을 기록한 문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자료가 부족한 고대 및 고려시대 불교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의 판독과 해석<sup>6)</sup>

### 1) 판독<sup>7)</sup>

[1]

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

6) 이 문서의 판독과 해석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판독문에 의거하였다. 수십매의 낱장으로 분리된 문서들을 복원-정리하는 과정에서 순서의 뒤바뀜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지만 원문서를 보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도 일단 공개된 판독문을 신뢰하고 그에 의거하여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7) 판독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시한 판독문을 토대로 하면서 안승준의 판독을 참고하였다. 현재 공개된 사진이 있는 경우([1]의 아랫부분 및 [3]의 위·아래 부분)는 사진과 대조하여 글자를 판독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판독 방식에 따라 구절이 바뀌는 곳에서 띄어 쓰기를 하고 원문에서 글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곳에는 빈칸에 밑줄을 그어 구분하였으며, 吏讀로 생각되는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 ■, ? 등 확인되지 않는 글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중앙박물관의 판독에 따랐다. 공개된 사진이나 내용을 통해 글자가 확인 혹은 추정되는 경우에는 [ ]에 글자를 넣었다. 문서 단편의 번호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시한 판독문의 순서에 따라 필자가 붙였다. 내용상 각각의 단편 사이에는 1-2행 정도가 결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大平四年歲次甲子三月日 月含山瑜伽業 / (佛)國寺无垢淨光<sup>8)</sup>塔 重修 記  
 右塔開?爲白平事之段 新羅第(三) / 十五代 景德大王朝 相公大城角干  
 亦 王矣則位天寶元年壬午元 成立 / 爲白平矣 惠恭大王矣代良中沙  
 2成立爲白?事?置在亦 天寶元(年) / 壬午元 高麗 太祖神聖大王元 第 口  
 口 口 顯宗元文大王??至平 大平四(年) / (甲)子己只<sup>9)</sup>引乎 二百八十五年 <王  
 代曆良中...><sup>10)</sup>

## [2]

口口?大平二年壬戌正月日元 寺(依止) / 口口口口口口 當寺僧衆口口口  
 口令<sup>11)</sup>白分 慶州嶺州永州等州縣? / 口穀三百五十余石 麻三百三十余疋 水(鐵)  
 雜鐵合四百余斤乙 集平分 工匠乙良 / 口寺成造大匠等乙 界官口中日?口  
 當寺依止工巧僧人乙 合 ■ 大平四年甲(子) / 二月十七日 吉日擇定爲塔破分類  
 弥<sup>12)</sup>下  
 是白平矣 仰蓮臺花蕊筒柱 ■ 中 / 口爲白置在?如乙 十八日辰時亦中 下  
 是白良 金堂庭中良中 邀是白口 / 口火雜菓等三十三禮物以 供養作  
 口口口口寺口院良中 邀 ■ 白每口 / 口花燈燭口以 供養爲白口口口

## [3]

■<sup>12)</sup>?矣臺錦刀冬音一 銅鍍金[合<sup>13)</sup>] / 口刀冬音一 无垢淨光陀羅尼(經)

8) 淨光: 사진에 의하면 문서에는 원래 光淨이라고 쓰고 도치 부호를 붙여 淨光으로 읽도록 하였다.

9) 己只: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사진으로 볼 때 己只가 맞다. 안승준도 己只로 판독하였다.

10) 王代曆良中... : 이 부분은 앞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細注로서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11) 弥: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弥 弥이지만 내용상 한 글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2) ■: 안승준은 出로 판독하였지만 사진상 명확하지 않아 일단 박물관의 판독문에 따랐다.

13) 合: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口이지만 사진에 合의 윗부분이 보이므로 合 혹은 合일 것으로 추정된다.

九偏 全金瓶一隨錦帛 一 舍利八? / [鍍<sup>14)</sup>]金[函<sup>15)</sup>]一隨錦刀冬音一 无垢淨光施羅  
尼經一卷隨錦帛 一 右之安藏爲白置 / □弥 碎折去有如 第石乙良 長壽寺<sup>16)</sup>  
筒石一 寺南川石一乙 寺師<sup>17)</sup>衆?以 □ / 2分 《盆<sup>18)</sup>》覆花焰流皇天皇師子等<sup>19)</sup>石  
乙良 東山東面柒田院東筒[石<sup>20)</sup>] / □取良刻造爲在分 三月十四日舍(利)  
□ □ □ 平矣 □ □ 下 □ □ □ / □ 寺依止大德澄 □<sup>21)</sup> 亦 □ □ □

[4]

寶[篋<sup>22)</sup>]施羅尼經 龍?一封 丁香一(封) / □ 香一封 青木香一封 生?香一封 □ □  
一封 胡?一封 銅含子一 青?服子一 (寺) / (依)止大德[軍]繼[繼]像露含子一金부 □  
銀부一片 乳香一封 骨香一封 丁香 □ (封) / 下梨勒一个 臘香茶一封 寺依止師  
釋元納 祿羅繡 ■ 服子一 寺依止師 / ? 納 錦帛一 骨香一封 小石?十二 寺  
依止大德正均納 乳香一封 寺依止? / 納 骨香一封 明? 師納 下梨勒二个

14) 鍍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사진으로 볼 때 鍍로 판독된다.

15) 函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안승준의 판독에 따라 函으로 판독하였다.

16) 寺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안승준은 寺로 판독하였다. 사진의 모양이나 내용으로 볼 때 寺로 판독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7) 師 : 안승준은 僧으로 판독하였지만 사진상 명확하지 않아 일단 박물관의 판독문에 따랐다.

18) 盆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盆이지만 안승준은 앞의 盆으로 판독하고 앞의 分을 고친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에 보이는 글씨 모양이나 내용으로 볼 때 盆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에 分에 삭제 표시가 없으므로 이 글자를 分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처음 문서를 쓸 때에 빠뜨려서 나중에 추가한 글자로 생각된다.

19) 等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等이고 안승준은 共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박물관의 판독문을 따랐다.

20) 石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사진으로 볼 때 石으로 추정된다. 안승준도 石으로 판독하였다

21) □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인데 안승준은 出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일단 박물관의 판독문을 따랐다.

22) 篋 :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篋이지만 내용상 篋의 異體字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篋으로 판독하였다.

骨香一封 石斧二木? 眞賢師[納<sup>23)</sup>]/? 一个 石? 宗英師納 骨香一封?

[5]

寶以舍利 ■ 嘆 ■ 食各三味 / □ □ □ 置如納? 一 紅羅繡帛一  
舍利由上? 白? 在 公事繁多? □ / □ 供三百面 都護使良中安  
上? 白??? 納 ■ 教在筭? 干午?? / 寺名公輝 ■ 德? 正納? 安? 白? 由  
白分 舍利乙良白象乙??? / ? 中大?? 以安? 白? 三????  
南[無<sup>24)</sup>]念上 ■ 白良 伎樂? 以 慶? / ? 念上 ■ 白分 香花童子二乙 錦?  
□ □ □ 大德 □ □ □ □ □ □ / □ 內分 舍利監當大德兢旻?

[6]

□ □ □ □ □ □ □ / □ □ □

大平四年甲子三月 / 記

三綱典

都監大德 / □ □ 副都監? 良 副監? 英 史??

太官典

典?? / 史 ?? 師

? 色典

[7]

左右徒典

均空師 □ □ / □ 史通業 保遲師

23) 納: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내용으로 보아 納으로 추정된다.

24) 無: 박물관의 판독문에는 ?이지만 내용으로 보아 無로 추정된다.

伯士 大匠天嚴寺 □ / □ 師 ? 良寺李光師

當寺 邦彦師 □ / 匠 ■ 等???亦在

□ □ ■ 白?寶條??? □ / □ □ □ □ 仙門 ■ 中題施文乙 □

[8]

(大德)兢旻 大豆一石 豆一石 生鐵三斤 □ / □ 英爺一 大德 □ □ □ □ □  
 輝雄?鐵二條 大德位廉 木(麥) / □ 石 火梯二條 大德想應 眞麥三 □  
 大德?? 米五斗 豆一石?一斗 生(鐵) / 二斤 大德?安 食一石 大德孝元  
 木麥一石 大德元漢布一疋 木麥一石 / 大德?日 布十五尺?宗? 食一石  
 生鐵一片 目賢師 食一石 輝中師 □ / 斗 生鐵二片?孝師 木麥一石?智  
 □ □ □ □ □ □ □ □ □ □ □ □ □ □ / □ □ □ □ □ □ □ □ □ □ 生鐵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宗師 米一石 豆五斗 布一尺?布? / 洩七合 ??師 米一斗 彦雄師 馬一疋  
 嵩英師 食一石 長刀一 生鐵一斤 士? / ?廉師 豆三斗?哲師 食一石?均師  
 食一石 範良師 食一石 居?師 木(麥) / 三斗 保賢師 太一石 豆五斗?雄師  
 豆一石 智際師 豆一石 食四石 ?? / 師 豆十斗 金一片 範英師 木麥五(斗)  
 邦彦師 木麥一石 戒 ■ 師 食一石 米 □ / 斗 正?師 木麥一石 弘業師 太一石  
 食 □ □  
 ??師 木麥一石 得英師 木麥一 □ / □ □ □ (師) □ □ □ □ □ □ □ □ □ □

[10]



會眞師 布一疋 輝之師 木麥三口 / □ □師 木麥一斗 澄密師 黃?四?  
新寺主??? 大牛一首\_?□ / 師 單袴衫一? 良寺主 李光 米  
一石 豆五斗 慶州貞福 米五刀 / 九聖東槩 食一石 範魚寺 光應?  
一疋 光海北戶??一丁 柒田<sup>[29]</sup> / □ □師 單袴一 興元寺 師正 生鐵二片  
當寺今勿達奴 食五斗 大?□ / □??寺主 米五斗 同寺?福 □  
□ □ □ □ □ □ □ □ □ □ □ □ □ □ / □ □ 〈安〉 □ 二 都護副使 米一?

25) 院: 박물관의 관독문에는 없지만 내용상 柒田 뒤에 院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大豆 寺仲里 ■ 二旬??+(物) / ?輪 於乙村主爲棟梁 白粥赤粥 六  
□ □ □ □ □ □ □ □ □ □ □ □ / □ □ □ □ □ 物 塔破日 □ □ □

[13]

東岳領頭元里乙雲亦滿 □ / □ □ 爲?亦<雨下<sup>26)</sup>>爲?亦虹立???袖  
筒南末梓界水 ■ 筒山要月? / ?立在亦晴化爲?分 申時亦中電 □  
2亦在分 二十二日寶條 ■ 二十(三日) / 寺上里名公和尚?\_舍利 ■ 兼衆 ■  
■ 進?矣舍利前供味 ■ 長 / 在羅白 ■ 花瓶三山菓二十物供白?  
右供味 ■ ■ 筭乙衆良中 ■ □ / ?以進在分 寶以 赤粥大豆 二十四日 ? □ □  
?宗師雜食 (保賢師)大豆?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姓等 ■ 二旬 ■ ■ 五物 ■ ■ 林 / □ ■ 旬 ■ ■ 七物 / 二十七日 寶大(豆)  
仇?在別?? ■ 一旬 ■ ■ □ / □ 月面林所?枝林 ■ 一旬 ■ 五物  
■ ■ 林?宅林等 ■ 一旬 ■ ■ □ □ / 二十八日 二十九日 山神?經初向 ■ 三月  
一日功德天 ■ 二日寶 ■ 三日 □ / ■ 經?大半日 ■ 四日寶 ■ 智際師 □  
■ 二旬 ■ ■ 十物 五日寶 ■ □ / □ ■ 七日山神?經? ■ □ □

[15]

■ 等 ■ 二旬 ■ ■ 十物 九日 □ / ??人? 車乙達 大豆?寶 ■ □  
十日雨下 十一日寶 ■ 史??/? ■ 二旬 ■ ■ 十物 寶以 ■ ■ ■ □ □

26) 雨下: 박물관의 판독문에 < >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 18)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 사이에 추가된 글씨로 생각된다.

士了寶 ■ 亘廉師大豆 ■ □ / □?側? ■ 二句 ■ ■ 十物 南石林  
 百姓 ■ 二句 ■ ■ 六物 十三日 / ??寺慶日師 ■ 二句 ■ ■ 十)六<sup>27)</sup>物  
 右之 ■ 刑正以爲內乎事 / 代

原

## 2) 해석문

[1]

太平4년 갑자년(1024년, 고려 顯宗 15년)<sup>28)</sup> 月舍山<sup>29)</sup>(에 있는) 瑜伽業<sup>30)</sup>(에 속한) 佛國寺(의) 無垢淨光塔<sup>31)</sup>을 중수한 일에 대한 기록.

이 탑을 개창한 일은 신라 제35대 景德大王(742-765) 때의 재상이었던 (金)大城角干이 (경덕)왕의 즉위하던 天寶 원년 임오년(742년)부터 만들어 세운 것이 되 惠恭大王(765-780) 때에야 완성된 일이었다. 천보원년 임오년부터 고려太祖 神聖大王을 거쳐 (고려의) 제(8대) 顯宗 元文大王 때인 태평4년 갑자년까지 이른 것이 285년이다.<sup>32)</sup> <《王代曆》에 ...>

[2]

27) 十)六 :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十)六으로 판독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렇다면 < > 안에 들어 있는 十은 주 18)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 사이에 추가된 글씨로 생각된다.

28) 1024년으로 고려 顯宗 15년에 해당한다.

29) 月舍山 : 佛國寺가 있는 吐舍山을 가리킨다. 전남 지방의 月出山이 달나산(達擎山)으로 불렸던 것처럼 따는 우리말 달[月]의 소리를 한자로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30) 瑜伽業 : 瑜伽唯識을 전공한다는 의미로서 고려시대의 법상종을 가리킨다.

31) 無垢淨光塔 :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의거하여 만든 탑. 이 경전에 의하면 法, 곧 다라니를 寫하여 99(혹은 77)개의 小塔에 넣은 후 이를 塔 속에 봉안하면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8-9세기 신라에서는 이 경전에 근거한 無垢淨塔이 다수 만들어졌다. 傳皇福寺塔(706년), 桐華寺 敏哀大王石塔(832년), 경주 昌林寺塔(855년), 봉화 驚棲寺塔(867년), 皇龍寺塔(871년), 海印寺 妙吉祥塔(895년) 등이 확인되고 있다.[姜友邦, 1991 <佛舍利莊嚴論>《佛舍利莊嚴》(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法空과 莊嚴》(열화당, 서울 재수록) 참조]

… 太平2년 임술년(1022년, 현종 13년) 정월 일부터 절에 머무르던 … 當寺(= 불국사)의 승려 무리들이 … 慶州, 蔚州, 永州 등 州縣의 (稅?)穀 350여석과 麻 330여필, 水鐵과 雜鐵을 합하여 400여근을 모았다. 工匠은 口寺를 만든 大匠 등을 界官<sup>33)</sup> … 이 절에 머무르는 재주있는 승려들을 합하였다. 태평 4년 갑자년 2월 17일에 吉日을 골라 정하여 탑을 부수어 해체하여 내려놓았는데, 仰蓮臺·花藥·筒柱<sup>34)</sup> … 18일 辰時(오전 7시-9시)에 내려서 金堂의 뜰 가운데에 맞이하여 (香?)火와 雜菓 등 33가지 예물로 공양 …, 절의 (金堂에?) 맞이하여 (香?)火와 燈燭 등으로 공양 ……

### [3]

…의 깔개 비단 刀冬靑[臺錦刀冬靑]<sup>35)</sup> 하나, 구리로 만들고 금칠을 한 盒(하나

32) 처음 탑의 건립을 시작한 742년부터 1024년까지는 전통적인 해아림으로 283년이 되므로 ‘五’는 ‘三’을 잘못 쓴 것이거나 계산상 착각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024년은 顯宗이 생존해 있던 시기이므로 顯宗이나 元文大王과 같은 廟號 및 諡號가 사용된 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일이다. 안승준·김태식의 발표문에서는 현종 사후인 1031년 이후에 최종 마무리하여 탑에 안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이 문서의 뒷 부분에서 ‘太平四年甲子三月記’라고 적고 있는 것과 모순된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종 사후인 1038년(靖宗 4년)에 석탑을 중수하면서 현종대의 중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 중수기의 뒷부분에 작성 일자를 大平 4년(1024년) 3월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석연치 않다.

33) 界官: 고려시대의 지방 편제에서 都護府와 牧 등의 大邑이 관할하는 지역을 界라고 하였다. 佛國寺의 경우 慶州都護府(使)를 界首官으로 하는 慶州界에 속하였다.

34) 仰蓮臺·花藥·筒柱 등은 각기 仰蓮의 臺座, 꽃술 모양, 筒모양의 기둥 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35) 刀冬靑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비단으로 만들었고 盒이나 函 등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물건을 싸는 용도의 물건으로 생각된다. 冬靑은 두릅(생선 스무 마리나 나물 스무 움큼을 줄로 엮어 해아리는 단위)의 吏讀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말 두릅다에서 파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刀冬靑은 ‘刀’의 형태를 한 길쭉한 모양의 보자기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및 딸린 비단 刀冬帛 하나, 『無垢淨光陀羅尼經』 아홉 묶음, 순금으로 만든 병 하나 및 딸린 비단 주머니[隨錦帛]<sup>36)</sup> 하나,舍利 여덟 (결락)<sup>37)</sup>. (구리로 만들고) 금칠을 한 函 하나 및 딸린 비단 刀冬帛[隨錦刀冬帛] 하나, 『無垢淨光陀羅尼經』 1卷 및 딸린 비단 주머니 하나, 이상의 것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다. 깨어진 第石<sup>38)</sup>은 長壽寺 筒의 돌<sup>39)</sup> 하나와 절 남쪽 개울의 돌 하나를 절의 승려들로 ... 盆覆 · 花焰 · 流皇 · 天皇 · 師子 등의 돌은<sup>40)</sup> 東山 동쪽에 있는 柒田院 東筒의 돌을 가져다 새겼다. 3월 14일에舍利 ... 절에 머무르는 대덕 澄口이 .....

## [4]

『寶篋陀羅尼經』<sup>41)</sup>과 龍口 한 봉지, 丁香 한 봉지, 口香 한 봉지, 靑木香 한 봉지, 生口香 한 봉지, 口口 한봉지, 胡口 한 봉지, 銅舍利 하나, 靑口服子 하나

36) 隨錦蕊의 隨는 앞에 나오는 물건에 딸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7) 八 다음의 글자는 내용상 舍利를 헤아리는 단위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진으로 볼 때 사리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顆나 粒 등으로 보기는 힘들다.

38) 第石은 석탑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명확하지 않다. 안승준은 第石을 중수에 필요한 돌을 가공하여 둔 石物로 해석하였다.

39) 筒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淨兜寺五層石塔形止記>에 金直田筒에서 돌을 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돌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鮎貝房之進은 <淨兜寺五層石塔形止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金直田筒의 筒을 “灌溉用の堤堰”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鮎貝房之進, 1934 <淨兜寺五層石塔形止記の研究>《朝鮮學報》25, 朝鮮學會, 天理) 안승준은 筒石으로 끊고서 이것을 통돌 즉 절구처럼 등글고 구멍이 파인 돌 혹은 대롱같이 등글고 길쭉하게 생긴 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40) 盆覆 · 花焰 · 流皇 · 天皇 · 師子 등의 돌은 석탑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돌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41) 원래 이름은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 印陀羅尼經』이며 一切如來全身舍利的 공덕을 모든 다라니 40句를 書寫하여 탑이나 불상 등에 봉안하면 一切如來의 護念으로 번뇌에서 해탈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세기 후반 중국의 吳越王 錢弘俶이 8만 4천 개의 小塔을 만들고 그 안에 이 경전을 봉안해 널리 반포하였으며, 그 영향을 받은 고려에서도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이 경전을 봉안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강우방, 1991 <앞 논문>참조)

를 넣었고, 절에 머무르는 대덕 輝雄이 像露合子 하나, 金부 …, 銀부<sup>42)</sup> 1片, 乳  
 香 한 봉지, 骨香 한 봉지, 丁香 口 봉지, 下梨勒 한 개, 臘香茶 한 봉지를 넣었  
 고, 절에 머무르는 승려 釋元이 녹색 비단에 수놓은 옷[祿羅繡 ■ 服子] 하나를  
 넣었고, 절에 머무르는 승려 口口가 비단 주머니 하나, 骨香 한 봉지, 小石? 12  
 개를 넣었고, 절에 머무르는 대덕 正均이 乳香 한 봉지를 넣었고, 절에 머무르  
 는 口口가 骨香 한 봉지를 넣었고, 明口師가 下梨勒 2개, 骨香 한 봉지, 돌 도  
 끼 돌, 木口 하나를 넣었고, 眞賢師가 … 한 개, 石口 하나를 넣었고, 宗英師가  
 骨香 한 봉지, …

[5]

寶로 舍利 … 식사에 각기 3가지 음식[三味]을 … 붉은 비단에 수놓은 주머니  
 [紅羅繡?] 하나를 넣었다.

舍利 … 공무가 번다하여 … 3백面을 바치고 都護使<sup>43)</sup>에게 …

…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 (當)寺의 名公 輝 ■ … 아뢰.舍利는 白象을  
 ……

南(無?)를 염송하고, 伎樂으로 축하하며, … 염송하였다. 香花童子 둘을 비단  
 …… 大德 … 舍利 監當은 大德 兢旻이고, …

[6]

… … …

42) 金부 · 銀부: 박물관의 판독문에 한글로 ‘부’ 라고 하여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43) 고려 成宗 6년에 東京으로 되었던 慶州는 顯宗 3년에 慶州防禦使, 5년에 安東大都護府로 바뀌  
 었다가 현종 21년에 다시 東京이 되었다. 이 문서가 작성되던 1024년(현종 15년)의 安東大都護  
 府였으며 그 장관은 大都護府使였다.

太平 4년 갑자년 3월 (일) 기록함.

三綱典<sup>44)</sup>(의 명단)

都監 大德 □ □, 副都監 □ 良, 副監 □ 英, 史 □ □

太官典(의 명단)

典 □ □, 史 □ □ 師

□ 色典(의 명단)

(결락)

[7]

左右徒典

均空師 …, 史 通業 保遲師

伯士<sup>45)</sup>(의 명단)

大匠 天嚴寺 □ □ 師, □ 良寺 李光師

當寺(=佛國寺) 邦彦師, □ 匠 … 이다.

---

… 寶의 항목으로 …… 佛門에 (시주하는) …

[8]

大德 兢旻이 大豆 1石, 豆 1石, 生鐵 3斤, … 英爺 하나. 大德 …… (大德?) 輝雄  
이 □ 鐵 2條. 大德 位廉이 木麥 □ 石, 火梯 2條. 大德 想應이 眞麥 3□. 大德

---

44) 三綱典 : 사찰의 운영을 담당하던 기구로서 三剛이라고도 하였다.

45) 伯士: 장인을 가리킨다.

□□이 米 5斗, 豆 1石, □1斗, 生鐵 2斤. 大德 □安이 食 1石. 대덕 孝元이 木  
麥 1石. 大德 元漢이 布 1疋, 木麥 1石. 大德 □日이 布 15尺, □宗師가 食 1石,  
生鐵 1片. 目賢師가 食 1石. 輝中師가 …斗, 生鐵 2片, □孝師가 木麥 1石. □  
智師가 … … 生鐵 …

[9]

… … …

□宗師가 米 1石, 豆 5斗, 布 1尺, … 洩 7合. □□師가 米 1斗. 彦雄師가 馬 1疋.  
嵩英師가 食 1石, 長刀 하나, 生鐵 1斤, … □廉師가 豆 3斗. □哲師가 食 1石.  
□均師가 食 1石. 範良師가 食 1石. 居□師가 木(麥) 3斗. 保賢師가 太 1石, 豆 5  
斗. □雄師가 豆 1石. 智際師가 豆 1石, 食 四石. □□師가 豆 10斗, 金 1片. 範  
英師가 木麥 5(斗). 邦彦師가 木麥 1石. 戒■師가 食 1石, 米 □斗. 正□師가  
木麥 1石. 弘業師가 太 1石, 食… □□師가 木麥 1石. 得英師가 木麥 1… …

[10]

… 米 5斗, 太 1石. □周師가 豆 … 布 15尺. 戒日師가 米 1石. 湯道(師)가 米 1  
豆. 澄彦師가 豆 3斗, □甘師가 米 … □業師가 米 1斗. 弁應師가 米 1斗. □保  
師가 米 3斗. 範■師가 食 5斗. 含□(師)가 米 1斗. 主眞師가 米 3刀. 彦□師가  
豆 1斗. 均進師가 米 1斗, 豆 3斗. 英京師가 … 暹律師가 木麥 2斗. 嵩□師가  
米 1斗, … 有赤師가 米 1斗. □□師가 布 15尺. □□師가 米 1斗. 得■師가  
單袴 하나. 眞由師가 食 … □□師가 □□(一片). □□師가 鐵 1(斤?). □□  
師가 □ 1石 … 鐵 …

[11]

… … …



會眞師가 布 1疋. 輝之師가 木麥 3匁. □□師가 木麥 1斗. 澄密師가 黃□4匁.  
 新寺主 … 大牛 1首. □□師가 單袴衫 하나. □良寺主 李光이 米1石, 豆 5斗.  
 慶州 貞福이 米 5刀. 九聖東樑이 食 1石. 範魚寺 光應 … 1疋. 光海北戶…1丁.  
 柒田(院) □□師가 單袴 하나. 興元寺 師正이 生鐵 2片. 當寺의 今勿達奴가 食  
 5斗, 大(豆?) … □□寺主가 米 5斗. 같은 절의 寺 □福이 … … 都護副使<sup>46)</sup>  
 가 米1…

## [12]

新寺의 □□師가 布 1疋 … 鵠寺主가 布 1疋. 그 밖의 州縣 … 갖추어 기록  
 함. 十方의 佛菩薩 … …

2월 17일, 寶로써 無理… 1旬. 18일, 赤粥 大豆 寺上里 名公(和尚) … 三(旬) …  
 10物. 19日, 赤粥 大豆 寺依(止) 大德輝雄 … 2旬 … 7物. 20日, 雜食 大豆 寺仲  
 里 … 2旬 … 10(物) … 輪 於乙村主가 棟梁이 되어 白粥 赤粥 6… … 物.  
 塔을 해체하던 날에 … …

## [13]

東岳嶺 頭元里에 짙은 구름(乙雲)이 가득 … 또한 비가 내리고, 또한 무지개가  
 뜨고 … 袖筒南末梓界水 ■ 筒山要月 … 立하고 또 맑게 되었음. 申時에 번개 …  
 이었다. 22일, 寶로… 23일, 寺上里 名公和尚이 舍利 … 無理 … 바치되 舍利  
 앞에 바친 음식 … 羅白 … 花瓶 3개 山菓 20物을 바치고 이상의 바친 음식 …  
 등을 무리에게 … 내었다. 寶로 赤粥 大豆. 24일, … □宗師가 雜食, (保賢師)가  
 大豆 … …

46) 都護副使는 都護府의 次官職이다.

[14]

.....

(百?)姓等 … 1旬 … 5物 … 林 □ □ 旬 □ □ 7物. 27일, 寶로 大(豆) … … 1旬  
 … □ 月面林 所 □ 枝林 … 1旬 □ 5物. … 林 □ 宅林等 … 1旬 □ □ □ (物?). 28  
 일?29일, 山神 □ 經 初向 ■. 3월 1일, 功德天 ■. 2일, 寶 ■. 3일, □ □ 經 □  
 大半日 ■. 4일, 寶 ■. 智際師가 … 2旬 □ □ 10物. 5일, 寶로 … 7일, 山神 □ 經  
 .....

[15]

…等 … 2旬 □ □ 10物. 9일, …人 車乙達이 大豆 … 寶 … 10일, 비 내림.  
 11일, 寶로 … 2旬 □ □ 10物. 寶로 … 士了寶 … 亘廉師 大豆 … … 2旬 □ □  
 10物. 南石林 百姓 … 2旬 □ □ 6物. 13일, □ □ 寺 慶日師가 … 2旬 □ □  
 10(16)物 이상을 … 刑正 … 하는 일. 代<sup>47)</sup>  
 끝(原).

### 3.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의 내용에 대한 검토

#### 1) ‘安藏’과 吏讀 ‘分’의 의미 검토

앞에 제시한 판독문과 해석문을 통하여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글자의 판독과 단어의 해석에 있어 기존에 제시된 안승준 선생의 판독 및 해석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無垢淨光陀羅尼經』의 제작 시기와

47) 代: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다.

관련하여 특별하게 주목되었던 ‘安藏’이라는 용어와 이 문서에서 특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吏讀 ‘分’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이 문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석탑의 중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無垢淨光陀羅尼經』의 제작 시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3]에서 『無垢淨光陀羅尼經』을 비롯한 여러 물품들을 나열한 후 나타나고 있는 ‘安藏’은 일반적으로 석탑에 물품을 봉안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無垢淨光陀羅尼經』을 비롯한 나열된 물품들을 석탑을 중수하던 1024년에 처음 봉안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석탑에서 있던 것을 꺼냈다가 다시 봉안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석탑에 물품을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8)</sup> 하지만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安藏’을 탑에 봉안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문서의 [2]에서 [5]까지의 기록은 탑의 중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고 있는데, 安藏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는 보수를 위해 탑을 해체한 직후로서 아직 물품들을 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탑에 물품을 봉안하는 것은 숭례를 봉안하는 것과 함께 행하여졌다고 생각되는데, 숭례의 봉안에 관한 내용은 [3]의 5행 뒷부분 이후에 3월 14일의 일로 언급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安藏’ 앞에 나열되어 있는 물품들은 석탑을 해체하면서 숭례와 함께 발견된 물품들로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安藏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발견한 물품들을 어딘가에 ‘잘 보관해 두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sup>49)</sup>

48) 안승준은 ‘갑무리를 잘하여 안치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49) 이런 점에서 安藏이라는 용어를 근거로 1024년에 석탑을 중수할 때에 『無垢淨光陀羅尼經』 등의 물품을 석탑에 봉안하였다고 하는 해석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서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吏讀 '分'<sup>50)</sup>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두로서 문장의 마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이두 용례에서 '分'은 ① '그 분', '저 분' 등과 같이 사람을 높여 부르는 대명사, ② '1년분', '1인분' 등과 같이 때나 몫을 가리키는 말, ③ '뽕', '만'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sup>51)</sup> 이 문서의 경우 이와 같은 기존의 용례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서에 사용된 吏讀 '分' 중 [2]의 2행과 3행, [3]의 5행, [12]의 2행과 3행 등의 것은 모두 일정한 내용이 끝나는 곳에 사용되고 있고, 뒤에는 바로 다른 내용이 시작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分'은 하나의 사실이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吏讀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分'의 경우도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의 4행과 [5]의 4행·5행, [12]의 5행에 사용된 '分'도 서술되는 내용이 끝남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分'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한다면 결락된 글자가 많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해당 부분의 해석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sup>52)</sup>

## 2) 중수기의 구성과 중수 절차 검토

이번에 소개된 1024년의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는 형태상 하나의 이어진 종이에 쓰여진 문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중수 사실을 기록한 부분[A]과 중수에 필요한 물품을 시주한 사람 및 물품의 명단을 기록한 부분[B]으로 구분된다. 이중 앞부분[A]은 중수 작업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부분(A-1: 문서의 처음부터

50) [2]의 2행과 3행, [3]의 4행과 5행, [5]의 4행과 5행, [12]의 2행, 3행, 5행. 이중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3]의 경우 分의 마지막 획이 빠져 있어서 다른 글자의 異體字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1) 장세경, 2001 《이두자료 읽기 사전》(한양대학교출판부, 서울), pp. 79-80 참조

52) 이런 점에서 안승준 선생이 지운 글씨로 판독한 [3]의 4행에 있는 '分' 역시 지워진 글자가 아니라 문장의 마지막에 온 글자로 볼 수 있다.

[6]의 1행까지)과 중수 작업을 주관한 승려 및 장인들의 명단(A-2: [6]의 2행부터 [7]의 4행까지)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부분[B]은 중수 작업을 위해 시주한 사람과 그들이 시주한 물품의 명단(B-1: [7]의 마지막 행부터 [12]의 3행까지)과 중수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매일 매일의 식사와 그 재원을 기록한 부분(B-2: [12]의 4행부터 끝까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 문서는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들 각 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중수 작업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해 본다.

문서 첫 부분[A-1]의 내용을 토대로 중수 작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1022년 1월부터 중수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고, 장인을 선정하는 등 중수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기본적 준비를 하였다. 먼저 중수를 위한 비용을 준비하였는데, 이때 준비된 물자는 불국사 승려들이 모은 물자와 근처 지역인 慶州, 蔚州, 永州 등 여러 州縣에서 지급받은 것을 합하여 곡식 350여 石과 麻 330여 疋, 鐵 400여 斤 등이었다.<sup>53)</sup> 이들 물자는 중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곧바로 중수 작업에 이용되는 물자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sup>54)</sup> 문서의 뒷부분에서 석탑 중수를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그리고 중수 작업 기간 동안의 식사에 필요한 寶로 충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寶는 바로 미리 준비된 물자로 구성해 두었던 석탑 중수를 위한 寶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사찰에서 寶의 구체적 기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53) 고려시대에 사찰에서 탑이나 비석 등을 건립할 때에 주변 군현의 조세 물자를 전용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물자도 경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조세에서 전용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54) 안승준·김태식의 발표문에서는 다량의 철을 준비한 것을 토대로 석탑의 剎柱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국사 석탑의 찰주를 만드는 데에 400여 斤 분량의 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고려 전기에 鐵은 곡식이나 麻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화폐적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 특별히 주목된다.

물자의 준비와 함께 중수 작업을 담당할 工匠 즉 匠人을 선정하였다. 이 부분에 결락이 있어 정확하게 해석되지는 않지만 界官 즉 慶州大都護府 관할 지역 내의 능력있는 장인들과 불국사 내부의 숨씨있는 승려들을 선정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대도호부 관할 지역에서 장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지방 관인 都護府使의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격적인 중수 작업은 1024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탑을 부수고 해체하였는데, 이때 석탑에서 仰蓮臺 花蕊筒柱 즉 仰蓮의 대좌를 가진 꽃술 모양의 筒柱에서 무엇인가가 발견되었다. 아마도舍利를 비롯한 여러 물품들을 봉안하였던 상자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날인 2월 18일 오전에 이 筒을 금당의 마당으로 가지고 가서 여러 예물을 갖추어 공양한 후 다시 사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다시 공양하였다. 이러한 공양은 이 물건에 모셔진舍利에 대한 공양이었을 것이다. 중간에 결락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3]에 나열된 『無垢淨光陀羅尼經』 등을 비롯한 여러 물품들은 공양을 마친 후 筒을 열어 보았을 때 그 안에 모셔져 있던 물품들 즉 처음 석탑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舍利와 함께 봉안하였던 물품들의 목록으로 생각된다. 『無垢淨光陀羅尼經』의 경우 9篇과 1卷으로 표현된 두 종류가 나타나고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前者는 竹筒으로 제작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sup>55)</sup>

이후에 파괴된 석탑 부재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필요한 석재는 長壽寺의 筒과 불국사의 南川, 東山 동쪽에 있는 柒田院 東筒 등에서

55) 안승준·김태식의 발표문에서 篇은 編과 같은 것으로서 竹筒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編은 '韋編三絶'이라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간을 묶는 것으로서 9編은 죽간 아홉 묶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승려들이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문서에는 第石과 盆覆·花焰·流皇·天皇·師子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석탑의 어떠한 성격의 돌로써 석탑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석탑 부재를 다시 만드는 작업은 3월 13일까지는 완료되었고, 3월 14일에는 석탑 중수의 마지막 절차로서 舍利를 석탑에 봉안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문서에는 사리와 함께 봉안된 물품 및 시주자의 명단을 적고 있는데, 대부분 불국사 승려들이 시주한 물품들이었다. 문서의 해당 부분에 결락이 많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경주의 지방관이었던 都護(府)使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사리 봉안 과정에는 지방관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과 관련하여서는 부처에의 귀의를 의미하는 南無를 염송하고 伎樂을 연주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香花童子 즉 향과 꽃을 든 동자 둘에게 비단 옷을 입혔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사리를 봉안하는 행렬에 이 동자들을 앞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755년의 華嚴經寫經 과정에서는 사경 작업을 시작할 때 깨끗한 옷을 입은 靑衣童子가 伎樂인과 함께, 앞에 서서 香水와 꽃을 길에 뿌리고 가며 그 뒤에 승려들이 향로를 받들고 범패를 하면서 사경하는 곳으로 나아간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sup>56)</sup> 비록 경전 사경과 석탑의 사리 봉안으로 작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의식의 진행 모습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문서의 두 번째 부분[A-2]에는 중수 작업을 주관한 승려들의 명단이 三綱典, 太官典, 口色典, 左右徒典 등으로 구분되어 적혀있다. 이중 三綱典은 사찰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므로 당시 불국사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던 승려들의 명단으로 볼 수 있다. 太官典, 口色典, 左右徒典 등도 모두 승려들이 담당자

56) 《新羅華嚴經寫經跋文》“經寫時中竝淨淨爲內 新淨衣 襪水衣臂衣冠天冠等莊嚴令只者 二靑衣童子 灌頂針捧 弥又靑衣童子著四伎樂人等 竝伎樂爲弥 又一人香水行道中散弥 又一人花捧行道中散弥 又一法師香爐捧引弥 又一法師梵唄唱引弥”

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찰의 운영이나 石塔 중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조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른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판독도 불완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기구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승려들의 명단 다음에는 작업을 실제 담당하였던 장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인들 역시 대부분 승려들이었다.

문서의 세 번째 부분[B-1]은 제목 부분에 결락이 많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寶의 항목으로 佛門에 시주한 사람과 그 시주 물품 목록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국사 승려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다른 사찰 승려와 속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속인 중에는 지방관인 都護副使도 보이고 있다.<sup>57)</sup> 가장 마지막에는 ‘已外州縣’이라고 적고 있는데 앞에서 기록한 慶州, 蔚州, 永州 등 주변 州縣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현에서 시주한 물자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문서의 네 번째 부분[B-2]에는 작업이 실제로 진행된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매일의 식사 및 재원에 대하여 적고 있다. ‘寶以’ 혹은 ‘寶條’로 기록된 것과 특정 인물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전자는 미리 준비한 寶의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고 후자는 승려나 신도들이 특별히 음식을 시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의 단위로는 旬과 物이 사용되고 있는데, 旬은 끼를 의미하고 物은 음식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sup>58)</sup> 2월 23일의 경우 숯에 대한 공양을 겸하여서 대중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었는데 이때는 특별히 山菓 20物이 준비되었다. 2월 28일과 29일, 3월 1일과 7일에는 ‘山神口經’ 혹은 ‘功德天口’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에는 山神이나 功德天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개최되어 석탑 중수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3월 10일

57) 都護副使 앞의 결락 부분에 지방장관인 都護(府)使도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8) 旬의 경우 1旬, 2旬, 3旬이 보이고, 物은 5物, 6物, 7物, 10物 등이 보이고 있다.



의 경우 비가 내렸다(雨下)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작업이 중단된 날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네 번째 부분의 2월 21일의 기록 부분에는 탑을 해체하던 날의 기상 변화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결락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東岳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떴으며 다시 오후에는 번개가 쳤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탑을 해체한 것은 2월 17일인데 왜 21일의 기록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앞에 기록할 내용을 빠뜨려서 뒤에 적은 것인지 아니면 21일의 음식물 시주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서 기록한 것인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佛國寺의 소속 종파 및 승려 구성에 대한 검토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에는 석탑의 중수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석탑을 중수하던 당시 佛國寺의 동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시 불국사의 소속 종파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法相宗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기존의 자료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三綱典의 조직, 그리고 60여 명에 이르는 당시 불국사 승려들의 존재 양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실 등이 주목된다.

불국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화엄종 사찰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 문서에서는 첫머리에 ‘瑜伽業佛國寺’라고 밝히고 있어서 1024년 당시에 佛國寺가 瑜伽業 즉 法相宗의 사찰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불국사와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화엄종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불국사의 창건 과정을 전하고 있는 《三國遺事》의 〈大城孝二世父母〉에서 義相의 문도인 表訓과

59) 『三國遺事』卷5 〈大城孝二世父母〉 “爲現生二親創佛國寺 爲前世爺孃創石佛寺 請神琳表訓二聖師各住焉”

神琳이 불국사의 창건 직후 이곳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sup>60)</sup> 고려초 光宗 대에 활약한 均如의 저술에 불국사 창건을 주도한 金大城이 表訓에게서 화엄 사상을 배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61)</sup> 또한 신라말 崔致遠이 찬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불국사 관련 글에서도 ‘華嚴佛國寺’를 칭하고 있다.<sup>62)</sup>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불국사는 8세기 중반 의상계 화엄학파와 관련을 가지며 창건되었고 이후 9세기 후반까지도 화엄학파와 관련되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된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의 내용을 통하여 1024년 당시에는 華嚴宗이 아닌 法相宗의 사찰로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9세기 말 이후 어느 시기엔가 法相宗 사찰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불국사의 종파가 변화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삼국유사》에서 처음에 表訓과 神琳이 머물렀다는 《古鄕傳》의 내용과는 별도로 불국사 창건 직후에 瑜伽大德降魔가 駐錫하였다는 〈寺中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sup>62)</sup> 이 瑜伽大德降魔가 어떠한 성격의 승려인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해석이 분분하였는데, 1024년 당시 불국사가 瑜伽業에 속하였다는 사실로 볼 때 瑜伽唯識學을 전공하는 승려 즉 법상종 계통의 승려를 가리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瑜伽大德降魔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적지 않다. 《삼국유사》에 인용되고 있는 〈寺中記〉는 당시 불국사에 전해지던 자체 기록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불국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화

60) 『十句章圖通記』卷下 (韓國佛教全書 제4책, 63a-b) “表訓大德在皇福寺時 大正角干 進於訓德房 中白言 請學三本定焉 於是訓德 教令大衆 竝出房外”

61) 〈華嚴佛國寺阿彌陀佛畫像讚〉(《圓宗文類》 권22), 〈華嚴佛國寺釋迦如來繡像讚并序〉(《東文選》 권 50) 등

62) 『三國遺事』卷5 〈大城孝二世父母〉 “寺中有記云 景德王代 大相大城以天寶十年辛卯 始創佛國寺 歷惠恭世 以大歷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乃畢成之 初請瑜伽大德降魔 住此寺 繼之至于今”

엄종 계통의 表訓과 神琳을 무시하고 법상종과 관련되는 瑜伽大德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고려시대 당시 불국사에 머물고 있던 법상종 승려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때 《古鄕傳》의 내용이 불국사 창건 당시의 사실을 보다 부합되는 것이고 《寺中記》의 내용은 불국사가 법상종 사찰로 변화된 이후에 불국사 승려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야기된 전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63)</sup>

불국사가 언제 법상종 사찰로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불교계에도 큰 변동이 있었던 후삼국 시대 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초 불교계를 주도하던 화엄종과 선종에 비해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던 법상종은 10세기 후반 이후 주로 지방을 배경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법상종 승려 출신인 顯宗이 즉위한 이후에는 화엄종이나 선종에 못지 않는 유력한 종단으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다.<sup>64)</sup> 불국사가 법상종 사찰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1024년 불국사의 석탑 중수는 당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법상종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석탑의 중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승려들의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직책이 모두 확인되는 三綱典은 都監, 副都監, 副監, 史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3) 『佛國寺古今歷代記』에 唯識學 승려인 圓測이 佛國寺에서 강의를 하였거나 佛國寺에 圓測의 講院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도 후대에 불국사가 법상종 사찰로 바뀐 이후에 등장한 전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4) 穆宗의 母后인 千秋太后는 顯宗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억지로 승려로 출가시켰는데, 현종은 三角山 지역에 있던 법상종 사찰에 머물게 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과 관련된 여러 차례의 위기를 법상종 승려들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국왕으로 즉위한 현종은 법상종 승려를 國師와 王師로 책봉하고 자신과 부모의 願刹로서 당시 최대규모의 사찰을 지어 법상종에 속하게 하는 등 법상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崔柄憲, 1981,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沽 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지식산업사, 서울) 참조]

는 고려시대의 다른 기록들에 三綱의 구성원이 院主, 維那, 典座, 直歲, 史 등으로 나타나는 것과 차이가 있다.<sup>65)</sup> 순서로 보아 都監이 院主, 副都監과 副監이 維那·典座·直歲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삼강의 구성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고려시대 三綱(綱)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 禪宗 사찰 관련 기록이었던 것과 달리 佛國寺가 敎宗인 法相宗에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문서에 나오는 三綱典의 구성원은 禪宗과 다른 敎宗 사찰의 三綱의 구성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문서에 보이는 승려 조직 중 그 성격이 확인되지 않는 太官典, 口色典, 左右徒典 등도 敎宗 혹은 法相宗 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기구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에는 석탑 중수 작업에 참여하거나 여러 물품을 시주하는 승려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단편적인 기록이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크게 大德과 師, 名公和尚 등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이 문서에 등장하는 승려들은 ‘大德○○’ 나 ‘○○師’ 혹은 ‘名公(和尚)’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호칭의 차이는 이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大德은 신라 때부터 高僧들에게 사용되던 호칭인데 고려에서 僧科가 실시된 이후에는 僧科에 합격한 승려에게 주어지는 僧階로서 사용되었다.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가 작성된 1024년은 승과가 시행되고 나서 70여년이 지난 때이므로 이 문서에 나타나는 大德 호칭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은 모두 僧科에 합격한 고급 승려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달리 그냥 ‘○○師’로 나타나는 승려들은 僧科를 통과하지 않은 일반 승려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大德과 師의 신분적 차이는 이

65) 三綱에 대한 설명 및 고려 초기 자료에 보이는 三綱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병삼, 1995 〈통일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僧官制度〉(國史館論叢) 62 (國史編纂委員會, 과천) 참조.

들이 맡은 직책이나 시주 물품을 기록하는 순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三綱典의 경우 최고 책임자인 都監은 大德으로 나타나고 있고, 副都監과 副監, 史 등은 大德을 칭하지 않는 일반 師들이다.<sup>66)</sup> 시주 물품의 기록에 있어서도 앞부분에 大德들의 시주 물품을 일괄하여 기록하고 師들의 시주 물품은 그 뒤에 적고 있다. 시주 물품의 액수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大德들의 시주 물품이 일반 師들의 시주 물품에 비해 액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중수 작업을 위해 시주한 승려들의 명단[B-1]에는 불국사에 주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승려 51명이 확인되는데 이중 大德은 9명, 일반 師는 42명이다. 大德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결락되지 않은 것과 달리 일반 師의 명단을 기록한 부분에 결락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일반 師는 약 50명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주 물품이 米 1斗 혹은 米 3刀라는 적은 액수에 그치는 승려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석탑 중수 작업을 위한 시주에는 불국사에 소속된 승려들이 모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시 불국사의 승려는 약 60명 정도였고, 그 중 大德은 9명으로서 15% 정도가 될 것이다. 전체 승려 중 大德 즉 僧科 출신 승려가 15%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佛國寺라는 유서 있는 사찰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같은 명단에 기록된 다른 사찰 소속 승려들의 경우는 寺主의 직책을 갖고 있는 인물을 포함하여 아무도 大德이라는 칭호로 불리고 있지 않다.

한편 名公이라는 승려의 호칭은 이 문서에서 모두 3회 나타나고 있다. 舍利봉안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名公 輝口’이 보이고 식사 재원을 밝힌 부분[B-2]에 식사 제공자로 寺上里의 ‘名公和尚’이 두 차례 나타나고 있다. ‘名公和尚’

66) 나머지 典들의 경우 결락으로 각각의 직책을 맡은 승려의 호칭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의 경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 나온 ‘名公 輝口’와 동일 인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sup>67)</sup> ‘名公 輝口’의 경우 숭례 봉안 절차에 관한 논의의 가장 뒤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名公和尚’은 유일하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분량도 3旬 10物과 山菓 20物 등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名公은 사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가진 승려로 생각된다. 名公이라는 호칭 자체도 꽤 중요하고 존중되는 승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名公和尚’의 和尚 역시 자신의 스승이나 덕행이 높은 승려를 일컫는 尊稱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문서에서 ‘名公’이나 ‘名公和尚’으로 불린 승려는 당시 불국사를 대표하는 원로급 승려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68)</sup> 이 名公 혹은 名公和尚의 僧階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大德들보다 위상이 높고 名公 혹은 和尚이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僧科를 거치고 大德 이상의 승계를 가진 인물이었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에는 당시 불국사에 있던 승려로서 1명 내지 2명의 名公, 9명의 大德, 50명 정도의 일반 師 등이 확인되고 있다. 총 60여 명이 넘는 승려들로서 단일 사찰 승려의 명단으로는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의 호칭으로 사용된 名公과 大德, 師는 해당 승려들의 위상과 신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볼 때 당시 불국사의 승려들은 크게 3계층(혹

67)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에서도 앞에서 직책과 이름을 함께 열거한 승려의 경우 뒤에서는 직책만을 밝히고 이름은 적지 않고 있다.

68)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하면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와 함께 발견된 墨書紙片 중에는 〈布施名公衆僧小名記〉라는 문서도 있다고 하는데, 기록 순서로 볼 때에도 名公은 衆僧과는 구별되는 우월한 신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은 신분)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최근에 공개된 <불국사무구정탑중수기>의 판독과 해석을 시도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문서의 주요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미 발표된 선행 연구<sup>69)</sup>에 크게 의지하면서 일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과 미처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개략적인 검토에 그쳤지만 이를 통해서도 불국사 석탑의 중수 작업의 진행과정을 비롯하여 중수 이후 석탑에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 중수 과정에서의 물자 및 식사 조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문서가 작성된 11세기 전반 佛國寺의 소속이나 사찰 운영 조직, 승려들의 구성 양상 등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 및 사찰의 운영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서의 원본을 보지 못한 채 박물관이 제공한 판독문에만 의거한 것이므로 잘못 읽었거나 오해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서의 원본이 공개되고 이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들 이외에도 더욱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 1024년의 중수기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는 1038년의 중수와 관련된 문서의 내용이 함께 공개된다면 고려시대 불교계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문서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관련 학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바이다.

69) 주 5)의 안승준·김태식의 발표문.

추기1: 이 글을 작성한 이후에 덕성여대 남동신 교수로부터 이 중수기는 1024년 당시에 기록된 원본이 아니라 고려 후기에 원래의 문서를 다시 옮겨 적은 등사본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석가탑의 중수기가 아니라 多寶塔의 중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근거는 이 문서에서 현종의 廟號와 諡號가 사용되고 있고, 12세기에 초에 입적한 화엄종 승려 元景王師(1045~1114)가 주석한 사찰 중에 불국사가 나오고 있어 12세기 전반기까지는 불국사가 화엄종 사찰로 여겨진다는 점과 문서에 보이는 仰蓮臺·花臺·筒柱·○石·師子 등이 多寶塔의 구성요소들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두가지 모두 공감되는 바로서 남동신 교수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남동신 교수의 견해의 자세한 내용은 2007년 5월중에 한국역사연구회의 웹진에 공개될 예정이다.(한국역사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g>)

추기2: 이 문서에서 이두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分' 과 관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재영 교수로부터 이 글자는 이두 '며' 의 이체자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글자의 형태나 문장의 내용상 정재영 교수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